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목 관아 전시관' 어디까지 왔나

8백여점 유물 낮잠…관리동 전시관 신축 유력

개관 이래 자료 수집 꾸준
회랑 역사관 등 시설 비좁아
2005년부터 전시관 건립 요구
최근 용역 관리동 활용 제시
신축 타당성 검토 결과 주목

제주목 관아 전시관, 이번엔 가시화될까. 제주시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뢰해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지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해가 2005년이었다. 당시 관아 인근 노인회관 부지가 유력하게 제시되었지만 진척이 없었다. 최근엔 제주북초 동쪽 제주목관아 영주관 객사터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역시 힘을 얻지 못했다.

지난 9월 완료된 '제주목 관아와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해당 용역에 제주목 관아 전시관 건립 부지 후보가 상세히 나왔고 지금의 관리사무소 부지 활용 방안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목 관아 측도 이에 무게를 싣고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현재 제주목 관아 전시관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벌이고 있다.

▶협소한 공간에 소장품 10점도 공개 안돼=10월 현재 제주목 관아에서 보유한 자료는 870점에 이른다. 제주목사, 유배인, 제주 유학자 등과 관련된 자료로 250점이 넘는 전적류를 비롯 도자기류, 서예, 고문서, 민속공예품, 회화, 복식, 장신구 등을 소장했다. 개관 이래 꾸준히 유물을 수집해온 결과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제주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2002년 1단계 복원 사업을 마치고 문을 연 제주목 관아엔 두 개의 전시공간이 가동되고 있다. 입구에 있는 회랑과 망경루 1층에 있는 탐라순력도 체험관이다. 하지만 시설이 협소해 회랑에 조성된 제주목 역사관에 공개된 유물은 10점도 안된다.

이에 최근 용역에서는 "제주목 관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형태의 전시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전시관 건립 필요성을 밝혔다. 용역진은 역사 전문가, 도로교통 전문가, 지역 환 경디자인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시관 건립 부지로 3곳을 언급했다.

▶"관리동 신축시 관람 동선 재배치 필요"=전시관 후보지는 제주목 관아 안팎에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회관, 우체국 부지다. 이를 비교분석해 가장 적합한 부지로 거론된 곳은 관리동이다.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동안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추진 절차상의 이점이 있다고 했다. 관리동 건물이 25년 이상 노후화된 점도 신축을 통한 전시관 활용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신축비용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근 도로가 좁고 현재 제주목 관아 입구로 사용하는 외대문과 반대편에 위치해 관람동선을 다시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목 관아 측은 내년 2월까지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 실시설계 용역 등 국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목 관아 관계자는 "관아 일대가 탐라시대부터 제주의 정체·경제·문화 중심지였던 만큼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전시관이 있어야 한다"며 "관리동 신축을 전체로 용역이 맡겨진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애월해안로에 내달 문을 여는 SM디지털아트 뮤지엄이 개관 기념전으로 러시아 테크아트 기술을 활용한 '알리사, 리턴 투 원더랜드' 전을 펼친다. 사진=SM디지털아트 뮤지엄 제공

거침없는 여성, 알리사의 모험을 따라

SM 디지털아트 뮤지엄
내달 애월해안로에 개관
'알리사…' 첫 전시 마련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516-7)에 디지털아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SM그룹(회장 우오현)이 빌라드애월 제주 호텔(대표이사 허상진)에 조성한 SM 디지털아트 뮤지엄이다.

SM 디지털아트 뮤지엄은 11월 3일 개관 기념전으로 '알리사, 리턴 투 원더랜드'를 준비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새롭게 해석해 제작한 '알리사…'는 피지컬(Phygical), 디지털(Digital), 아트(Art)를 결합한 피지털 아트(Phygital Art) 작품이다. '앨리스'의 러시아식 발음이 알리사로 러시아의 테크아트 기술이 발현된 이번 전시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알리사는 강하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로 그려진다. 관람객들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알리사의 마법'을 느낄 수 있다. 동화책,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부모 세대들에겐 추억을 소환하고 아이들에겐 동심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짜여진다.

특히 이번 개관전을 찾는 어린이들은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벗어나 직접 만져보고 참여하면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열 방식이 아니라 놀이와 이야기가 있는 전시 공간으로 가동된다.

SM 디지털아트 뮤지엄 측은 "제주를 창조했다는 여신 설문대할망의 섬 제주에서 '걸크러쉬' 알리사가 등장하는 디지털콘텐츠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애월 해안도로 관광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시는 내년 11월 2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31일까지는 제주 도민에게 50% 입장료 할인(평일)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4)720-900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칠머리영등굿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인류무형유산 10주년 기념
내달 1~2일 시연·체험·세미나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 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사진).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벌이는 굿으로 1980년 제주칠머리당굿이란 이름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06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2009년엔 유네스코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제주굿이 제주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돌아본다. 11월 1~2일 제주시 사라봉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에서 열리는 '신(神)바람 타고 세계로'란 이름의 기념 행사다.

첫날에는 오후 3시 기념식에 이어 제주민요보존회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축하공연이 잇따른다. 제주춤아카데미, 상상놀이터, 풍물굿패신나락, 다올소리, 놀이패 한라산 등이 출연한다. 둘째날에는 오후 1~6시 한국무속학회와 공동으로 '칠머리당영등굿 발전방향'을 다룬 세미나가 마련된다. 이틀 동안 영등굿 시연(1일 오후 3시 20분, 2일 오후 1시 10분)과 만들기 체험(오전 10시부터)도 이루어진다. 문의 064)753-7812.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제주 보 피아노듀오 연주회

제주 보(Beau)피아노 듀오 열 번째 정기연주회가 이달 2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이동용 원양하 문희숙 강한나 조진경이 출연한다. 이들은 독주나 듀엣으로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조진경, 문희숙), 쇼팽의 '발라드 4번'(원양하)과 '판타지 작품 49'(강한나), 드뷔시의 '프렐류드'(이동용), 슈만의 '알레그로 작품 8'(문희숙)을 들려준다. 관람료 무료. 문의 010-8664-4204.

서귀포여고 동서고금 음악제

서귀포여자고등학교(교장 김월룡)는 내달 1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동문·학부모·학생·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9 동서고금-서귀포여고 음악제'를 연다.

이번 음악제에는 서귀포여고 김민하 교사가 지휘하는 아르스 오케스트라를 비롯 울림콰이어 합창단, 동문합창단, 불림 등이 출연한다. 수험생 등을 격려하며 '페르시아 시장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을 들려준다.

제주학회·몽골학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제주학회(회장 정광중)가 한국몽골학회와 공동으로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등에서 '유목문명과 탐라문화' 학술대회를 연다.

내달 1~3일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몽골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역사'를 큰 주제로 '탐라의 상업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박원길·칭기스칸연구센터 소장), '쿠빌라이칸과 제주'(모리스 로사비·콜롬비아대 교수)에 대한 기조강연이 이루어진다.

예술디자인대학 아트마켓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예찬'이 11월 4~5일 대학 학생회관 1층에서 'C-ART 아트마켓'을 운영한다.

C-ART 아트마켓은 예술과 대학생을 연결(Connect)시키는 곳에서 예술을 쉽게 선택(Choose)하고 고급문화라는 인식을 바꾼다(Change)는 의미가 있다. 예술 전공 학생들의 활동을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문화조형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술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해 만든 굿즈(제품)를 판매한다.

제주시 초·중 21교 꿈 담은 음악축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2019 제주시 학생 음악 축제'를 연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축제는 '감동의 하모니, 행복 나누다'를 슬로건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축제에는 제주시내 초·중학교 21개 팀, 학생 900여명이 출연한다. 1부에선 합창, 중창, 앙상블, 난타, 사물놀이 등 동아리 중심의 다채로운 공연이, 2부에선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참가 학생들이 점심시간, 방과후활동시간 등을 통해 꾸준히 쌓은 기량을 발표하는 자리로, 경연이 아닌 음악을 통해 소통·공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